

#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이해하기

한상욱 연구위원 · 유예나 연구원



##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!

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「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를 제정(2007)하고,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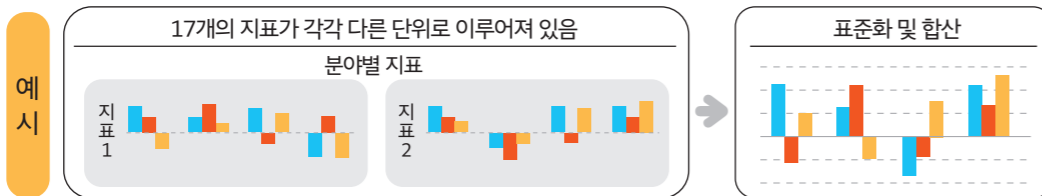
※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은 2단계 제1기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됨

충남 지역균형발전 지표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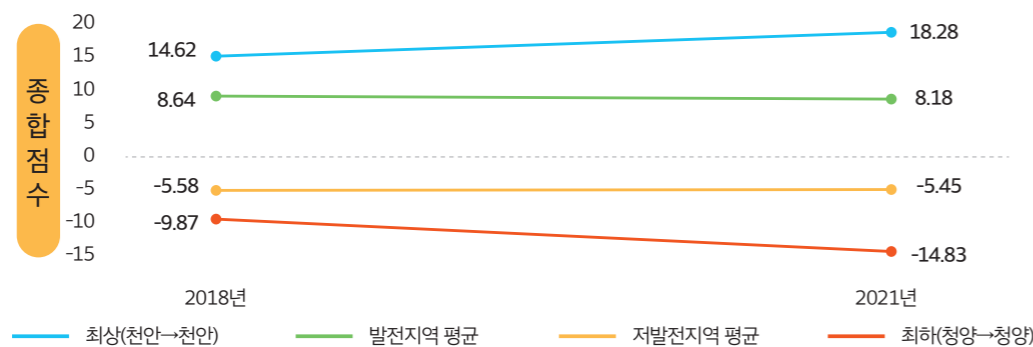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7개 분야의 17개 지표



모두 다른 단위로 이루어진 지표를 **표준화 후 합산**하여 최종점수 산정



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격차는 지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지만, 부문별로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



\*17개의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한 값이 양(+)인 지역이 발전지역

## 균형발전지표 체계의 개선

- 17개 지표 모두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, 격차를 발생·확대하는 공통지표와 시군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차별화 지표로 개선 필요
- ※ 시·군 간 격차가 확대되는 공통지표는 인구, 재정, 소득, 고용

## 균형발전지표 간 상관관계 고려

- 부문별 유사한 지표에 대한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선정
- ※ 지표가 일관성을 갖고 시·군 간 수렴되어야 하지만, 부문별로 시·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표 발생

##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전략성과 차별성 확보

-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 필요
- ※ 현재 지표는 각 17개 지표가 1/n로 구성되어, 지표 간 차별성을 두기 어려움

##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인 보완

- 향후 4차산업혁명, 지식기반산업, 인적자원 등의 중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지표 체계 개선 필요
- ※ 현재의 지표는 향후 기술 산업 반영, 지역경쟁력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에 얼마나 특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,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

## 시·군 특수성을 감안한 다계층적 공간단위의 지표 설정

- 현재는 시·군별 행정구역 단위로 측정하지만, 정책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람·기업·장소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
- ※ 공간적으로 대도시 연접지역, 전형적인 농촌지역, 산악지역, 해안지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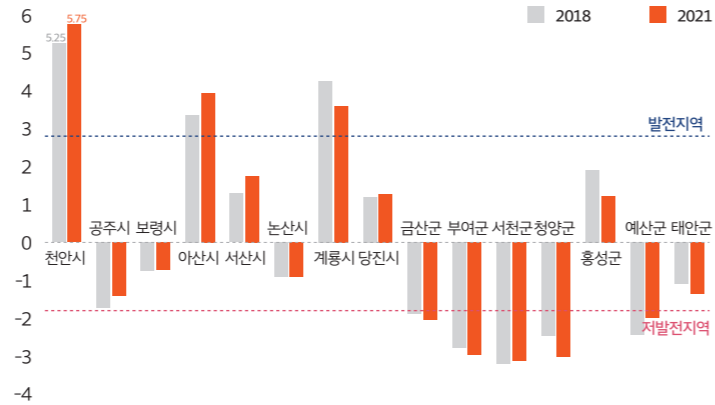
#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 지표는 인구, 재정·소득 분야



## 인구

연평균인구증가율, 인구밀도, 노령화 지수
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천안→천안)	5.25	5.75	0.50
발전지역 평균	2.88	2.93	0.05
저발전지역 평균	-1.92	-1.95	-0.03
최하(서천→서천)	-3.20	-3.14	0.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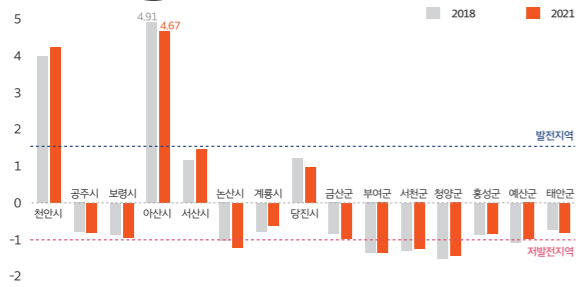


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저발전지역과의 격차 또한 지속적인 증가



## 재정·소득

재정력 지수, 소득세할증인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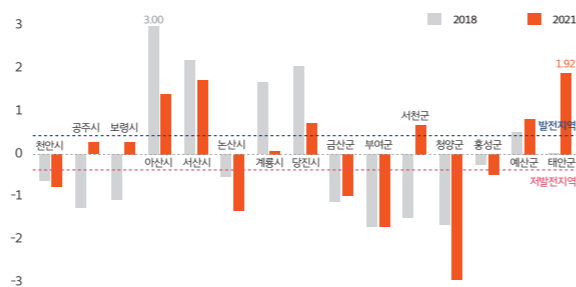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아산→아산)	4.91	4.67	-0.24
발전지역 평균	1.60	1.65	0.05
저발전지역 평균	-1.07	-1.10	-0.03
최하(청양→청양)	-1.52	-1.45	0.07

북부권에 속하는 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이 충남의 성장 견인



## 고용·산업

1천명 당 사업체수, 종사자수, 종사자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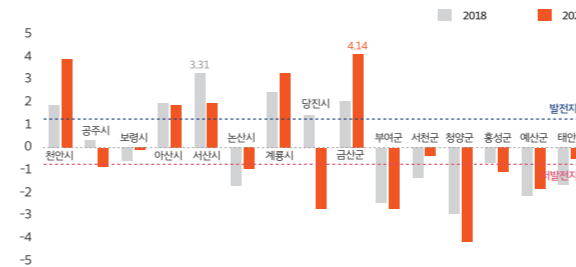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아산→태안)	3.00	1.92	-1.08
발전지역 평균	1.36	0.47	-0.89
저발전지역 평균	-0.91	-0.31	0.60
최하(부여→부여)	-1.68	-2.93	-1.25

제조업·신산업 정책을 추진한 곳은 지속적 증가, 농산어촌지역은 급격한 하락세



## 인프라

도로율, 상업·공업지역 면적비율, 상하수도 보급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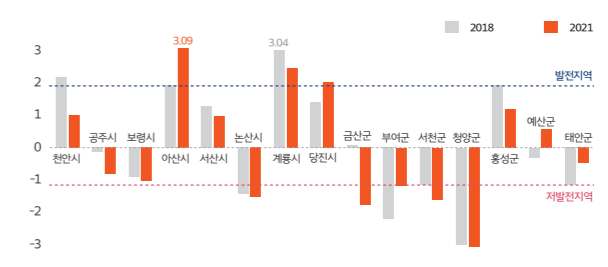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서산→금산)	3.31	4.14	0.83
발전지역 평균	1.74	1.21	0.53
저발전지역 평균	-1.16	-0.80	-0.35
최하(청양→청양)	-2.94	-4.17	-1.23

인프라 및 생활환경 분야는 시·군의 투자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



## 생활환경

노후주택비율, 1인당 공원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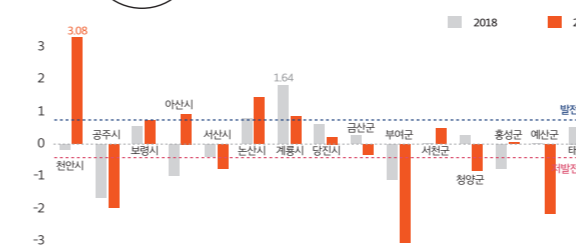

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계룡→아산)	3.04	3.09	0.05
발전지역 평균	1.96	1.82	-0.15
저발전지역 평균	-1.13	-1.21	-0.08
최하(청양→청양)	-2.98	-3.06	-0.08



## 교육·문화

면적당 학교수, 1천명당 문화·체육시설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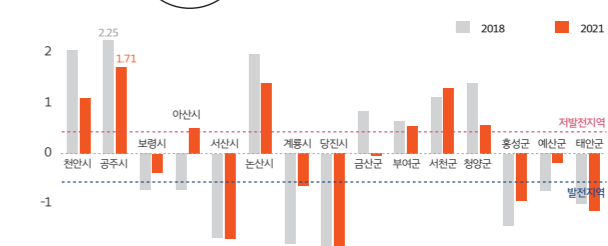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계룡→천안)	1.64	3.08	1.44
발전지역 평균	0.03	0.73	0.70
저발전지역 평균	-0.02	-0.49	-0.47
최하(부여→부여)	-1.00	-2.84	-1.84

인구 감소,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 학교, 문화 체육시설 수 증감이 시·군별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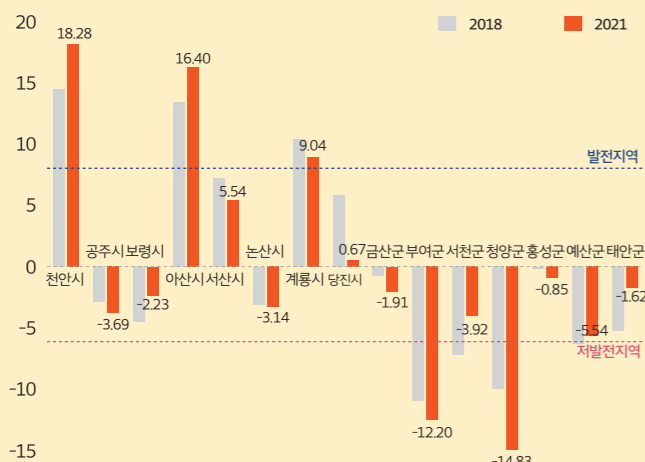
## 복지

1천명당 의료종사자수, 영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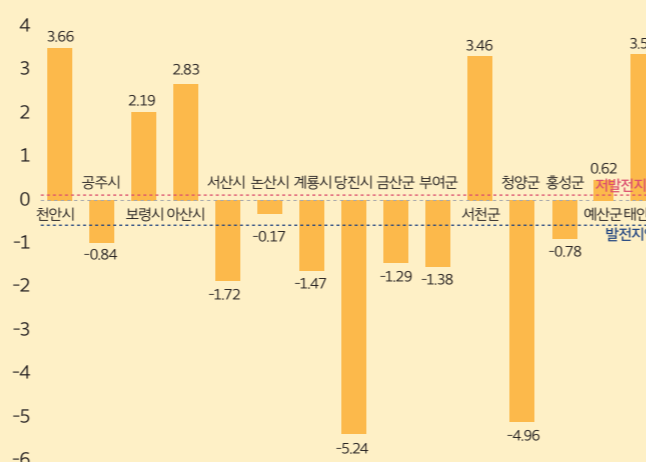


	2018년	2021년	증감
최상(공주→공주)	2.25	1.71	-0.54
발전지역 평균	-0.94	-0.61	0.33
저발전지역 평균	0.62	0.41	-0.22
최하(당진→당진)	-2.00	-1.91	0.09

## 종합 점수



## 종합 점수 증감



**정리하면!**

###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격차는 여전

일부 시·군 간의 순위 변동 있지만, 전체 격차는 고착화

### 저발전 시·군의 삶의 질 수준은 상대적 양호

문화, 복지 등 삶의 질 수준이 양호한 이유는 전체 인구의 감소에 기인

### 발전수준별 중위시·군의 지수가 약화되며 양극화 추세

발전 시·군과 저발전 시·군의 격차는 지속 벌어지고, 중간 시·군의 발전수준은 지수가 약화되는 추세

###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구, 재정·소득

발전 시·군의 인구, 재정·소득은 지속 확대  
저발전 시·군은 전반적인 활력 저하 고착화 우려